김만덕 스토리 북 I

나눔의 삶을 따라

김만덕 기념관
www.mandukmuseum.or.kr

차례

나눔의 빛을 밝히는

김만덕 기념관 • 5

(1) 함께 느끼는 아픔

부모와의 사별 • 7

(2) 가장 낮은 곳에서 내민 도움의 손길

기녀의 팔이 된 만덕 • 11

(3) 용기 있는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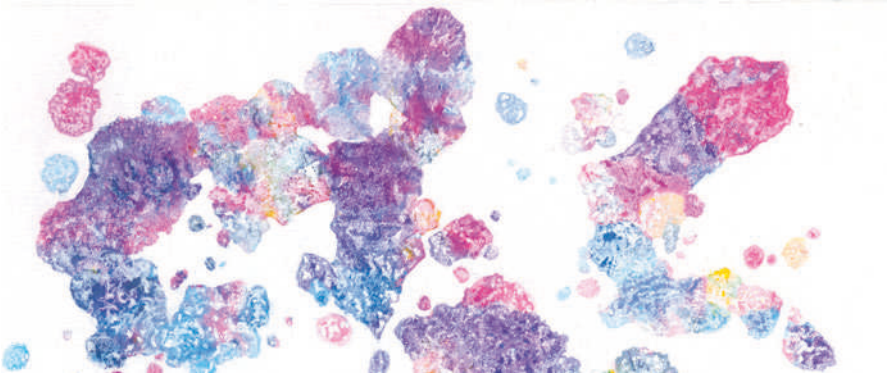
천인에서 양인으로 • 15

(4)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

상인의 길 • 20

(5) 소통으로 이룬 네트워크

객주의 성장 • 24



(6) 신뢰를 얻는 비결

믿음으로 거상이 되다 • 29

(7) 협동의 정신으로 극복한 어려움

지독한 갑인년 흉년 • 34

(8) 나눔으로 보여준 선행

제주 사람들을 구하다 • 39

(9) 차별의 벽을 넘어

만덕의 두 가지 소원 • 44

(10)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 49

김만덕의 얼을 잇는

김만덕 기념사업회 • 52

나눔의 빛을 밝히는 김만덕 기념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는 불과 100여 년 전만해도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무엇하나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그 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만덕입니다.

김만덕의 삶은 도전과 나눔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녀의 의로운 삶은 추사 김정희가 남긴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글씨에 어려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은 도전과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을 기리고

그녀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나눔문화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역경을 딛고 최고의 상인이 되어 나눔의 표상으로 성장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김만덕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보여준 그녀의 은혜로운 빛을 따라가 봅시다.

(1) 함께 느끼는 아픔

부모와의 사별

김만덕은 1739년(영조 15년) 제주의 평범한 양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여느 소녀들처럼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은 아무런 예고 없이 만덕을 찾아왔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만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맙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할 나이에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만 것입니다. 남겨진 형제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만덕은 어린 나이에 기댈 곳 없이 홀로 남게 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만덕에게 부모와 사별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훗날 극심한 굶주림으로 부모를 잃고 남겨진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만덕은 절망적이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가족과의 이별을 몸소 경험했기에 가족의 품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헌신한 마더 테레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 먼저 서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과 청각, 언어 장애를 함께 갖고 있던 헬렌 켈러를 가르친 앤 설리번 선생님은 자신도 병 때문에 어린 시절 한동안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헬렌 켈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일처럼 도울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을 겁니다. 덕분에 헬렌 켈러는 장애를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만덕의 아름다운 선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

는 바람으로 많은 재산을 선뜻 내놓았을 것입니다.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십 만 명의 어린이가 방학에도 급식이 있어야 하고, 노인들의 절반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 또는 희귀병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시작일 것입니다.

(2) 가장 낮은 곳에서 내민 도움의 손길

기녀의 딸이 된 만덕

한 순간에 부모를 잃은 만덕은 몸을 누일 곳도 마음을 기댈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행히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찾아갔지만, 그녀만은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때 만덕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권력자도, 부자도 아닌 한 기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귀하고 천함이 있어 양반과 중인, 상민, 천인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 중 천인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는데 노비나 백정, 기녀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덕을 벼랑의 끝에서 구해준 이가 천인 신분인 기녀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천인은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남성중심의 사회여서 여자는 함부로 나설 수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던 기녀가 갈 곳이 없었던 자신을 도와주었으니 만덕에게는 누구보다도 고마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덕이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데에는 이렇게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수렁에서 구해준 기녀의 영향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여자라는 신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람들의 어려움에 발 벗고 나선 것, 만덕의 행동이 특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도 남을 도와주는 숨어있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최귀동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남의 밥을 얻어먹는 생활을 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걸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행에 우리는 더욱 감동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보다 남의 어려움을 먼저 보듬을 줄 아는 숭고한 정신이 깊은 감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덕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것을 물질적인 나눔이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수단 남부 톤즈 마을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원주민의 병을 치료한 한국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의 사례는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자립을 위해 여러 사람들의 기부로 만들어지는 잡지 <빅이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유명 연예인들이 음성을 기부하는 소리책 등의 사례들은, 작은 재능의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꼭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능 기부는 만덕의 정신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용기 있는 도전

천인에서 양인으로

천인의 자식이면 자연스럽게 천인 신분이 되었던 조선시대 신분 제도 때문에, 만덕 역시 천인 신분으로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기녀의 딸은 대를 이어 기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덕 역시 기녀의 딸이라는 이유로 18세가 되자 당시의 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엄격한 신분 제도 아래에서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홍길동전」에서 서자인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

르지 못한 것처럼 신분의 차별이 뿌리 깊었습니다. 죄를 지어 신분이 내려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습니다. 노비들은 양반들 사이에서 매매 대상이 되거나 관아에 속한 물건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기녀가 되어야 했던 만덕에게 기녀의 삶은 벗어나야할 굴레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만덕은 자신의 신분을 되돌려달라며 수차례 관아를 찾아가 호소

를 했습니다. 보통 만덕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체념하고 기녀 생활에 적응해 살기 마련입니다. 신분제가 공고했던 조선시대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녀의 삶을 유지했다면 부잣집 양반과 혼인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덕은 다른 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보다 주체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해 만덕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양인의 신분을 되찾기에 이릅니다.

만덕과 같이 노비의 신분을 극복한 사례로 장영실을 들 수 있습니다. 장영실은 노비로 태어났지만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벼슬을 지냈습니다. 장영실이 천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과학적 능력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던 세종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덕의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천인에서 양인으로의 신분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그래서 만덕의 신분 회복은 더욱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만덕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업가들이 국내 경영인 어록 중 1

위로 정주영 회장의“ 이봐, 해봤어?”를 뽑은 것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덕이 보여준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만약 만덕이 기녀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했다면 훗날 의인으로서의 만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 있는 도전이 있었기에 그녀는 양인의 신분을 회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는 자신의 꿈을 펼치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4)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

상인의 길

만덕은 우여곡절 끝에 양인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날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에 스스로 뛰어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주의 여성들은 대부분 바다를 터전으로 활동하는 해녀가 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녀인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바다와 친숙해지고, 선배 해녀들로부터 물질 기술을 이어받아 해녀로서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러한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녀의 경험은 평범한 제주 여성들의 삶과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덕은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덕은 건입포구에 객주를 차리고 상인으로서 또 다른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만덕은 상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수공업과 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곳곳에 시장이 들어서면서 물건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여러 지역의 특산물들이 유통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물건을 맡아 팔았던 객주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객주의 중요성이 더했습니다. 만덕은 그 점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만덕은 물산객주를 운영하면서 위탁판매를 비롯해 숙박, 금융, 도매, 창고, 운반 등의 업무를 통해 상인으로서의 능력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고,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은 디지털 음악 생태계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아이폰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 변화를 선도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시대를 선도하는 신개념의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급변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재빠르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만덕 역시 상공업이 발달하는 시대의 변화를 포착하고, 스스로 상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의 여성들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제주 제일의 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5) 소통으로 이룬 네트워크

객주의 성장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갖고 있던 제주는 섬에서 나지 않는 물품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쌀이었습니다. 제주의 토양은 물이 잘 빠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 논농사를 짓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쌀은 값비싼 물품이었고, 쌀로 지은 밥은 중요한 손님이 방문할 때나 제삿날이 되어서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주에서만 나는 물건들은 육지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주는 농사를 짓기가 힘든 대신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미역의 경우 당시 제주에서만 채취될 정도로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돈 대신에 미역이

화폐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이래 많은 말을 길렀던 제주는 말총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말총은 양반들이 상투를 틀 때 사용했던 망건을 만드는 재료였기에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양반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주의 특산품들은 육지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만덕은 제주의 물품을 육지에 팔고, 육지의 물건을 제주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객주를 성장시켰습니다. 객주의 위치를 포구와 가까운 곳으로 정한 것도 많은 상인과 물건들이 드나드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만덕은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에서 관아의 물품까지 공급하면서 점점 성장하였고, 이후 객주 소속의 배를 갖춘 제주를 대표하는 거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만덕의 객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만덕의 객주는 오늘날의 대형마트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쌀을,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소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적재적소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객만
주덕

상인에게 중요한 능력은 남는 물건을 싼 값에 구매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과 다양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물건을 싼 값에 살 수 있는지, 언제 팔아야 이익이 남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숙식을 해결했던 만덕의 객주는 다양한 지역의 정보가 모이기에 가장 안성맞춤의 장소였습니다. 상인들과의 소통으로 얻은 정보들은 제주를 떠나지 않더라도 물건의 시세를 한 눈에 파악해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만덕의 활발한 소통은 제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위기에 처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나라에서 보낸 구휼미를 실은 배가 난파당하자 만덕은 그동안 쌓은 자신의 네트워크로 재빨리 쌀을 구해 제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만덕의 객주는 마치 오늘날 온라인 소통의 대명사인 SNS와 같은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덕 객주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만이 아닌 활발한 소통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신뢰를 얻는 비결

믿음으로 거상이 되다

만덕은 자신의 객주를 제주 최고의 객주로 올려놓았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제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상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만덕이 상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장사 수완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장사에서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가들의 목표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기업 이익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만덕은 자신의 이익보다 상인의 윤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싸게, 그러나 많이 판다"," 알맞은 가격으로 사고판다"," 정직한 믿음을 판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원칙 아래 조금의 이윤만 남기고 많이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만약 만덕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다면 <허생전>에서 허생이 과일과 말총을 독점하여 폭리를 취한 것처럼 탐욕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 경우 나 혼자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덕은 정직을 앞세워 장사를 했습니다. 제주 사람들과 공존을 위해 노력한 만덕의 상업술은 상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만덕의 장사 원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했던 경주 최씨 가문의 가훈과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

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고, 재산을 만 석 이상 지니지 말며,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최씨 가문의 가훈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덕 역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제주해녀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보여주는 불턱의 문화, 약자를 배려하는 할망바당 등에서 보이는 해녀들의 공동체 정신은 만덕이 상업을 통해서 추구했던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마음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7) 협동의 정신으로 극복한 어려움

지독한 갑인년 흉년

“ 산 높고 깊으니 물의 재앙이요, 돌 많고 땅이 척박하니 가뭄의 재앙이요, 사방이 큰 바다이니 바람이 재앙이다.”라고 할 정도로 제주는 척박한 환경을 갖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땅은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버리니 농사를 짓기 힘들었고, 여름이면 강타하는 태풍은 자연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만덕이 상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제주에는 여러 해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주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어사로 파견된 심낙수가 올린 장계에는 당시 긴급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 만약 쌀로 쳐서 2만 섬을 배에 실어 보내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머지않아 다 죽을 것입니다. ”

이러한 형편에 그나마 나라에서 급히 보낸 구휼미 덕분에 제주 사람들은 겨우겨우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나 갑인년(1794년)의 흉년은 제주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미 몇 해 동안의 흉년에 지치고 쇠약해진 상황에서 갑인년 흉년은 제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정조가“ 전대에도 들어보지 못하였고, 후대에도 듣지 못할” 재해라고 말했고, 채제공이“ 탐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이 죽은 시신이 더미로 쌓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갑인년 흉년은 처참했고, 제주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갑인년 흉년은 제주 사람들에게 고난의 시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시기를 서로 도우며 이겨냈습니다. 만덕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사람

들이 자신의 재산을 선뜻 내놓으면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나만 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모른 척했다면 제주 사람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IMF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금모으기 운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협동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된 것처럼, 갑인년의 흉년을 이겨내기 위한 자발적 나눔에서 제주 사람들의 협동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8) 나눔으로 보여준 선행

제주 사람들을 구하다

지독한 흉년에 나라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이 때 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쌀 300 석을 구입한 후 제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채제공은“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취하여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날랐다.”고 만덕의 선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덕 외에도 현감을 지낸 고한록이 300석, 장교 홍삼필과 유학 양성범이 각각 100 석씩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벼슬을 지냈거나 지역의 명망가였던 것에 반

해 만덕은 천인 출신에 여성의 신분임에도 가장 많은 재산을 쾌척했습니다.

만덕이 기부한 쌀로 제주도민 전체를 열흘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덕이 구해온 쌀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들이 1백 석을 자원 납부한 것은 육지의 1천 포와 맞먹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서 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구해온 쌀로 죽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만덕의 정성이 담긴 죽 한 그릇은 비록 귀한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고생해서 번 돈을 조건 없이 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덕도 자신의 부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객주에 다녀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덕은 자신이 억척스럽게 번 돈을 제주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만덕처럼 많은 부를 쌓은 재벌들은 사회 환원을 통해 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 초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던 사업가인 록펠러와 카네기는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병원과 교회, 학교 등을 세웠고, 카네기는 많은 도서관을 지어 기증하면서 자선사업과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의 회장인 빌 게이츠는 매년 수백 억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세계적인 재벌로 올라선 마크 저커버그 역시 자신의 재산 90% 이상을 기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기부에 나선 이유는 경제적인 풍요로움보다 나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풍요로움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만덕이 실천한 나눔 또한 상인으로서 쌓아올린 재산보다 나눔을 통해 쌓아올린 보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9) 차별의 벽을 넘어

만덕의 두 가지 소원

만덕의 선행은 바다를 건너 궁궐에 있는 정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조는 만덕의 선행을 칭찬하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명을 내립니다. 만덕이 원한 것은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가 아닌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여행이 아닌 왕이 사는 궁궐과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강산을 둘러보기를 원했습니다.

제주를 떠나 여행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제주는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제주 사람들이 허락 없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혹한 세금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제주 사람들이 섬을 떠나버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제주 사람들의 이탈을 강제로 막은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더구나 여자들은 육지 사람과 혼인까지도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넓은 바다 속에서는 한없이 자유롭던 제주의 여인들이 바다를 건널 수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덕의 소원은 참으로 당돌한 요구였습니다. 제주 사람이,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육지의 땅을 밟는다는 것은 지엄한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만덕의 의로운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만덕은 왕의 허락을 받고 금기를 뛰어넘어 육지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머무르는 궁궐은 아무나 들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일개 평민이 궁궐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왕을 만나는 것은 벼슬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덕에게는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명예직이 내려집니다. 만덕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의 몸으로 왕을 알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남자들도 평생에 한 번 가기 힘들다는 금강산까

지 유람하면서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최초 흑인 선수인 재키 로빈슨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차별을 받았지만, 꿋꿋이 이겨내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이후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메이저리그에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재키 로빈슨이 처음 메이저리그에 섰던 4월 15일이 되면 그를 기리며 그의 번호였던 42번을 달고 뛰니다. 그는 차별의 벽을 허문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덕의 행동도 바로 사회적 차별을 허무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주 사람이라는 차별, 여성이라는 차별을 공식적으로 깨뜨렸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자국을 내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라서 안 돼, 제주 사람이어서 안 돼, 평범한 사람이어서 안 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의 기록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10)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만덕은 1812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선사업에 힘을 쏟은 만덕은 제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조는 만덕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자 신하들에게 만덕에 대한 글을 지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재상이었던 채제공을 비롯해 박제가, 정약용, 이가환 등 유명한 학자들이 만덕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한 명의 여인을 위해 당대의 대가들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만덕이 보여준 삶이 특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주에 유배를 온 추사 김정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전해

지는 만덕의 선행을 듣고“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뜻의 <은광연세 恩光衍世>라는 글씨를 후손에게 써 주었습니다. 추사의 글씨처럼 우리나라 변방의 섬, 제주에서 보여준 만덕의 선행은 학자들의 글을 통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정조가 만덕의 기록을 통해 남기고자 했던 것, 추사가 글씨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한 만덕의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제주의 여성들은 만덕의 뒤를 이어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진 고수선 여사는 6.25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홍익보육원을 운영하면서 구호활동을 펼쳐,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봉사는 과거 만덕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선 여사는 나눔과 도전을 실천하는 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김만덕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는 이웃 사랑을 헌신적으로 앞장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김만덕상을 수여하면서 만덕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 뜻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덕은 고아에서 기녀로, 다시 상인으로, 그리고 나눔의 표상으로 성장했습니다. 김만덕은 죽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시대의 귀감이 되는 인물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신의 옆에 누군가 갑인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덕과 같이 수백 석의 재산을 내놓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마음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만덕을 기리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김만덕의 얼을 잇는 김만덕 기념사업회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도전과 나눔의 표상인 김만덕을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김만덕에 대한 학술사업과 더불어 쌀 천섬 쌓기, 만섬 쌓기 행사를 통해 의인 김만덕이 보여준 나눔의 삶의 가치를 알렸으며,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다양한 기부 활동과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에 걸맞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김만덕 국가표준영정 제82호

김만덕 스토리 북 1 - 나눔의 삶을 따라

펴 낸 곳 김만덕 기념관
펴 낸 이 관장 김상훈
글 쓴 이 양진건, 김진철
그 린 이 정지란
교　　정 김현주, 김옥선
진　　행 곽민, 고대일, 김미영, 김민아, 김창현, 김현주
제　　작 도서출판 비지아이
발 행 일 2016. 9. 30
주　　소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전　　화 (064)759-6090 FAX (064)759-6097

2016 김만덕기념관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